

조선지역 공의회 산물인 『천주교요리문답』 간행의 의의

김유진*

서론

1. 조선 지역 공의회 결정사항 : “교리교육에 관하여”
 - 1) 새로운 단일 교리서 간행 배경
 - 2) “교리 교육에 관하여” 8항 - 17항 교령의 검토
2. 교리서의 간행과 활용 : 라틴어와 한글본
 - 1)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의 “EXPLICATIONES” 편집
 - 2) 『천주교요리문답』 활용과 내용 분석 : 『경향잡지』

결론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국천주교회의 공식 교리서였던 『천주교요리문답』 간행 의의에 대해 다루었다.

『천주교요리문답』은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조선 지역 공의회 결정으로 발행된 공식 교리서였다. 이렇게 발행된 이유는 5개 교구로 성장한 한국천주교회의 교리서 쇄신과 통합을 위해 단일 교리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천주교요리문답』 라틴어 원문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와 한글 번역판 『천주교요리문답』을 함께 발행한 과정은 한국천주교회 교리서의 혁신을 보여주고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있다.

『천주교요리문답』은 1934년에 간행된 후, 교회 기관지인 『경향잡지』에 3년간 연재되었다. 『경향잡지』에서는 전체 교리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천주교요리문답』안에 담긴 신학적 주제와 내용을 1935년부터 1938년에 걸쳐 깊이 있게 전달하였다.

『천주교요리문답』은 한국천주교회 교리서 개혁 과정의 결실이었다. 또한, 한국교회 최초의 시노드에서부터 논의되었던 교리교육에 관한 여러 내용이 조선 지역 공의회를 통해 그 내용이 결정되어 발행된 교리서였다. 이렇게 발행된 『천주교요리문답』은 1967년 『가톨릭 교리서』가 나오기까지 33년간 한국천주교회의 공식 교리서로서 전해졌고, 예비자들과 많은 일반 교우들의 교리 지식 향상에도 공헌하였다.

주제어 : 천주교요리문답, 조선 지역 공의회, 경향잡지,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서론

한국천주교회는 한문서학서를 통해서 천주교 복음이 전래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창설 초기의 인물들은 다양한 한문서학서를 접하면서 그 영향으로 자발적으로 천주교 신앙을 수용할 수 있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특징은 교리교육에 관련된 교리서에도 영향을 주었다. 곧 교회 창설 초기에는 정약종이 『천주실의』, 『성세추요』, 『진도자증』, 『교요서론』 등을 참고해서 한글로 지은 최초의 교리서인 『주교요지』를¹⁾ 저술하였다. 『주교요지』는 당시 주문모 신부의 인준을 받아 신자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고, 여러 한문서학서와 함께 박해 시기에도 교리서로서 신자들에게 전달되었다. 1839년 기해박해 전후부터는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이 시작되었고, 교리서 편찬사업 등을 시작하며 요리문답 시기로 접어들었다.²⁾ 이 시기에 대표될 수 있는 교리서는 『성교요리문답』이었고,³⁾ 1925년까지 이어졌다.⁴⁾ 이후 1923년에 『서울 대목구 지도서』가

-
- 1) 조선 후기 학자이자 천주교 순교자 정약종이 한글로 저술한 최초의 천주교 교리서. 천주교 교리주해서. 상편은 그리스도교 자연철학의 호교적인 이론의 전개이며, 하편은 계시(啓示)를 중심으로 한 구속론(救贖論)으로 되어 있다.
 - 2) 이러한 이유는 당시 선교사는 적고 신자 수는 증감하는 전교 상황에 교리교육의 결함을 보충하는 방법은 서적의 보급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3) 한국교회사연구소, 『믿음이 배인 이 한 권의 책』, 『교회와 역사』, 279, 1998, 1쪽. 『성교요리문답』은 1860년을 전후하여 다블뤼 주교가 최양업 신부의 도움을 받아 한문본 『聖敎要理問答』에서 앞부분의 要理六端과 上等梅經을 제외한 네 가지 교리문답을 한글 번역하였고. 1864년에 서울의 목판 인쇄소에서 초판 간행되었다. 서울 목판 인쇄소에서 단권 초판이 간행된 후, 1886년에는 일본의 나가사키에 있던 인쇄소에서 간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전후하여 목판과 활판으로, 한글 또는 국한문 혼용 본으로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요근래 『성교요리문답』이 1864년 초판보다 빠른 1861년에 초판되었다는 논문이 제시되었다.(이석원,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 서울역사편찬원, 2021, 236~237쪽 참조)
 - 4) 또한, 이 시기에는 1884년에 『성교백문답』, 1910년에는 그림 교리서 『요리강령』이 출판되었다.

발행되며 『천주교요리(일명:천주교요리대문답)』의⁵⁾ 간행이 결정되고 발행되면서 새 현대 교리서의 기반이 될 근본적 쇄신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서 개혁은 1931년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단일 교리서 『천주교요리문답』을 간행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천주교요리문답』의 간행은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조선 지역 공의회 결정사항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공의회 교령 중, 7항에 제시되었고, 5개 교구 주교와 성직자 대표로 문답개정 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다. 문답개정 위원회는 1932년에서 1934년까지 새 교리서 간행작업을 하였다. 이후 한국 주교회의 심의를 거쳐 5교구 출판위원회가 단일 교리서 『천주교요리문답』을 발행하였다. 이는 조선 지역 공의회 목적인 한국 천주교회 신앙 전파와 선교 활동 방법을 통일하고 보존하기 위한 교리교육 부분의 결과였다.

『천주교요리문답』 발행 다음 해부터 『경향잡지』에서는 “『천주교요리문답』에 대해 연구함”이라는 제목하에 1935년 9월부터 1938년 2월까지 41회 연재하였다.⁶⁾ 이는 간행물로서 『천주교요리문답』을 공식 교리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천주교요리문답』은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공의회 결정으로 발행된 공식 교리서임에도 그 간행에 관한 연구가 없어서 본 논문이 하나의 시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선 지역 공의회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한윤식의 논문이 있다.⁷⁾ 그러나 『천주교요리문답』에 대

5) 교리서 저술은 르 장드르(Le Gendre, 崔昌根, 1866~1928) 신부였고, 한국인 사제들이 도와서 낸 국한문(國漢文) 혼용 교리서였다. 더불어 뮈텔(G. Mutel, 閔德孝, 1854-1933) 주교가 노인들을 위한 교리서인 『진교절요』와 『성교요리문답』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발행한 교리서였다.

6) 실제로는 22회가 두 번 연재되어 42회로 연재되었다. 본 논문 부록에 연재 순서를 첨부했다.

7) 한윤식, 「1931년 한국 첫 지역 공의회 개최-공의회 개최에 관한 논의와 공의회 거행의 중심으로-」, 『신앙과 삶』 21, 부산가톨릭대학교, 2010. 「1931년 한국 첫 지역 공의회-공의회의 교령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 22, 「1931년 한국 첫 지역 공의회-현지인 선교지(Missio indigena) 설립과 한국을 위한 단일한 지역 신학교 설립 문제-」, 『신앙과

한 선행 연구는 교리 내용 분석 연구 몇 편에 불과하다.⁸⁾ 본 논문에서는 『천주교요리문답』이 조선 지역 공의회 결정으로 발행된 의의를 살펴보겠다. 더불어 『천주교요리문답』발행이 한국천주교회의 기존 시노드에서 다루었던 교리교육에 대한 개혁을 완성한 교리서라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 첫 번째로 참조한 자료는 1931년 첫 조선 지역 공의회 기록과 교령 『*Acta et Decreta Primi Concilii Regionalis Coreani 1931*』 중, 제1부, 증진해야 할 신앙에 관하여(De Fide promovenda) 제2장 “교리교육에 관하여(De catechetica Institutione. cann. 7-17)”에 대한 11개 교령이다. 이 교령은 공의회가 기존 공식 교리서를 통합하고 단일 교리서로 발행한 목적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한국 천주교회 시노드에서 제시되었던 교리 내용이 조선 지역 공의회에서 확정 되고 『천주교요리문답』 발행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 참조한 자료는 『천주교요리문답』 1934년 제1판과 라틴어 원문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1934) 이다. 특별히 『천주교요리문답』 라틴어 원문 활용은 한글 번역으로 발행된 『천주교요리문답』이 원문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참조한 자료는 『경향잡지』에서 연재한 1935년 9월부터 1938년 2월까지 “『천주교요리문답』에 대해 연구함”이라는 잡지 내용이다. 이 자료는 『천주교요리문답』 교리 내용을 『경향잡지』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내

살』 23.

8) 황규남, 「한국천주교의 교리서 변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30~33쪽. 최석우, 「한국교회 교리서의 변천사」, 『司牧』, 35, 1974, 4-14. 황규남은 『천주교요리문답』의 발간 경위와 내용을 최석우의 「한국교회 교리서의 변천사」 논설을 인용하여 4쪽 분량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천주교요리문답』의 개정 요구에 대한 부분도 2쪽가량 제시하였다. 김유진, 「가톨릭 교리서 『요리강령』 연구 : 『요리강령』 판본연구와 『천주교요리문답』, 『가톨릭교회 교리서』 비교 연구」,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69~89쪽. 김유진은 『요리강령』과 『천주교요리문답』의 교리 구조와 내용을 20쪽가량 비교 연구하였다.

용이다. 이외에도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단행본과 논문을 참조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1장에서는 “교리교육에 관하여(De catechetica Institutione)” 교령에 따라 발행된 『천주교요리문답』을 살펴보겠다. 2장에서는 『천주교요리문답』과 라틴어 원문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 전체 내용과 구성을 통해 두 교리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참고로 『천주교요리문답』 라틴어 원문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은 이 연구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향잡지』에서 연재한 “『천주교요리문답』에 대해 연구함” 내용을 소개하여 교리 내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겠다. 결론에서는 『천주교요리문답』 발행 의미로 마무리하겠다.

본 논문은 『천주교요리문답』 발행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 공식 교리서인 『성교요리문답』과 『천주교요리』와의 연관성과 교리 내용 비교는 따로 연구 과제로 두겠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통일 교리서로 사용되었던 『천주교요리문답』의 간행에 대한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공의회 교령에 따라 『천주교요리문답』이 어떻게 발행되었고, 그 의미는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1. 조선 지역 공의회 결정사항 : “교리교육에 관하여”

1) 새로운 단일 교리서 간행 배경

조선 지역 공의회는 예비회의와 3회기를 거쳐 서언(Proemium)과 총칙(Canones Generales)에 해당하는 세 가지 조항과 4개 조항을 교령으로 선포하였다.⁹⁾ 그 중, 제1부 증진해야 할 신앙에 관하여(De Fide promovenda)

9) 제1부 : 증진해야 할 신앙에 관하여(De Fide promovenda), 제2부 : 품행의 규율에 관하여(De Morum disciplina), 제3부 : 경신례 그리고 특히 성사에 관하여(De Culto Divi-

24개(cann. 4-27) 교령은 거룩한 설교에 관하여(De Sacra Praedicatione. cann. 4-6), 교리교육에 관하여(De catechetica Institutione. cann. 7-17), 영혼의 사목에 관하여(De cura animarum. cann. 18-21), 가톨릭 액션에 관하여(De Actione Catholica. cann. 22-26), 로마 교황에 관하여(De romano Pontifice. cann. 27),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교령 7항부터 17항까지이다. 『천주교요리문답』은 이 교령에 따라 발행이 결정되었고, 1934년에 단일 교리서이자 공식 교리서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이유는 11개 조항이 당시 한국천주교회에 개선될 교리 교육과 조건, 교리서의 성격, 그리고 교리교사에 관한 조항이었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1857년 한국천주교회에서 개최된 최초의 시노드 이후 베르뇌 주교가 한글로 작성하여 신자들에게 보낸 『장주교윤시제우서』¹⁰⁾에서 시작된 교리교육의 중요성이 『조선교회 관례집』,¹¹⁾ 『대구 대목구 지도서』,¹²⁾ 『서울 대목구 지도서』¹³⁾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교

na et speciatim de Sacramentis), 제4부 : 성직자와 교회의 세속 재산에 관하여(De Bonis Temporalibus Cleri et Ecclesiae)

- 10)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 3』, 207~208쪽 참조. 베르뇌 주교 서품 다음 날인 1857년 3월 26일 부터 28일까지 한국교회 최초의 시노드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선교사들의 행동 규칙과 활동 계획이 수립되었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과 영회회 규정 등이 논의되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은 1857년 8월 2일에 『장주교윤시제우서』란 이름으로 신자들에게 반포되었다. 이는 최초의 공식 사목 지침서이고, 신자들이 평소에 힘써야 할 행동과 도리(道理), 성사 및 영회회 규칙이 수록되었다.
- 11)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 4』, 2011, 32, 107~108쪽 참조. 블랑 주교가 1887년에 펴낸 조선교회 지도서, 조선에서 처음으로 성문화된 형태로 간행된 법규 모음집이다. 블랑 주교는 1884년 9월 서울에서 7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시노드를 개최하여 선교사들의 활동 규칙과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침들을 확정하고 3년 뒤에 이를 책자로 간행하였다. 관례집에는 베르뇌 주교가 1857년에 반포한 사목서한, 1868년 차쿠 회의 결정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 12)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 5』, 2014, 141~144쪽 참조. 1912년 5월 26일 공포되었고, 1914년 간행되었다. 한국인 사제들과 프랑스 선교사들을 위해 마련된 지도서였고, 드망즈 주교가 지도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사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행하였다.
- 13) 같은 책, 116~122쪽 참조. 1922년 9월 21일 공포, 총 658조로, 서언, 제1편 사제에 관하여, 제2편 성사 집전, 제3편 교회 재산, 제4편 사제에게 부여된 특권으로 구성되었다. 특별

리교육에 관한 사항이 최종 결정된 회의가 조선 지역 공의회였기에 교령의 의미는 크다고 본다.

먼저 7항에서는 새로운 단일 교리서 작성을 위해 주교들과 대표들로 구성된 하나의 위원회를 설립하라는 결정이 있었다.¹⁴⁾ 1831년 조선 대목구 설정 이후 1세기가 지난 한국천주교회는 서울, 대구, 원산 대목구, 평양, 연길 지목구 등 총 5개 교구로 성장했다. 또한, 1908년부터 독일 베네딕토 선교 수도회, 미국 메리놀 외방선교회 등 여러 수도회가 한국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파리 외방전교회라는 특정 선교회에 위탁된 지역교회가 아니었다. 곧 5개 교구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교회 지침과 교리서가 필요했고,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자체적으로 지역 공의회가 개최된 것이다.

공의회 결정으로 당시 5개 교구는 새 교리서 간행을 위해 교리문답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교리문답 개정위원장은 드망즈(F. Demange, 安世華, 1875~1938) 주교,¹⁵⁾ 각 대목구 대표위원으로는 평양 지목구 모리스(Morris, 睦怡世, 1889~1987) 신부,¹⁶⁾ 양기섭(梁基涉, 1905-1982) 신부,¹⁷⁾ 서

히 청년교육, 회장 피정, 정치초월, 본당 문서 정리, 한국인 성직자 양성을 강조하였다.

- 14) *Acta et Decreta Primi Concilii Regionalis Coreani 1931, op. cit., Can. 7. Opus novi Catechismi unici pro Tota Corea conficiendi, Commissioni ex delegatis omnium Ordinariorum constanti, committatur.*
- 15) 『한국천주교회사 5』, 93, 141-144, 306, 325-217쪽 참조. 『경향신문』의 창간과 발행을 담당했다. 또한, 대구 대목구장이 되면서 1912년에 제정한 『대구 대목구 지도서』는 일제강점기의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지역교회의 규범집으로 1923년 『서울 대목구 지도서』 제정에 크게 참고가 되게 하였다. 1931년 조선 지역 공의회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1932년 발행된 『조선 선교지 공동 지도서』 준비위원 위원장이기도 했다.
- 16) 같은 책, 213~219쪽 참조. 메리놀 외방선교회 소속이며 1930년 제2대 평양 지목구장으로 임명되어 평양 각 지역에 본당을 신설하였고, 1936년 지목구장을 사임할 때까지 18개 본당을 신설할 정도로 사목 조직 확충에 힘썼다. 또한, 1933년 가톨릭 운동 전개를 위해 문서 전교에 힘쓰기도 했다. 1932년 『조선 선교지 공동 지도서』 간행에도 위원으로서 함께 하였다.
- 17) 같은 책, 215쪽 참조. 1930년, 서울에서 사제품을 받아 평양 지목구 소속 최초의 한국인

을 대목구 윤흥중(尹亨重, 1903-1979) 신부,¹⁸⁾ 대구 대목구 주재용(朱在用, 1894-1975) 신부,¹⁹⁾ 원산 대목구 로머(Romer, 盧炳朝, 1885-1951) 신부,²⁰⁾ 연길 지목구 귀겔겐(Canisius Kügelgen, 具傑根, 1884~1964) 신부였다.²¹⁾

특징적인 부분은 교리문답 개정위원 구성을 통해 당시 한국교회 성장이 어떠한지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부연하면, 교리문답 개정위원은 각 교구를 대표하는 외국인 주교와 함께 한국인 성직자가 참여했다. 1931년 기준 서울 대목구의 경우, 당시 외국인 성직자보다 한국인 사제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물론 원산 대목구, 평양, 연길 지목구는 한국인 사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지만, 대구 대목구는 외국 선교사보다 한국인 사제 증가추세였다.²²⁾ 곧 1831년 조선 대목구 설정 당시에는 한국인 사제가 없었지만, 100주년을 맞은 1931년에 이르러 75명 한국인 성직자로 거듭난 교회가 되었다. 한국교회의 발전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조선 지역 공의회였고, 교

성직자가 되었다.

- 18) 같은 책, 427, 432~433쪽 참조. 1930년 사제품, 1931년부터 『경향잡지』 주필(主筆)을 맡았고, 월간 『별』보 후원회에서 출판 활동에 몸담고 있던 성직자였다. 또한, 1933년 1월, 서울교구 출판부 보좌로 전임되면서 6월부터 장면, 장발, 정지용, 이동구 등과 함께 당시 5교구 출판위원회가 만든 『가톨릭 청년』을 창간하고 편집장에 취임하였다.
- 19) 같은 책, 136, 177쪽 참조. 대구 대목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 개교이래 1918년, 첫 번째로 서품된 사제였다. 주재용 신부는 함양, 목포, 제주 등지에서 사목활동 후, 1931년 5월,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 전임되어 사제 양성에 진력하였다. 그리고 1942년 전주 지목구장이 되었다.
- 20) 『한국가톨릭대사전 4권』, 2,201쪽 참조. 1911년 서품 후, 같은 해 한국 선교사로 입국하였다. 1920년 베네딕도 수도회가 원산교구를 맡으며 사우어 신부가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자, 로머 신보는 사우어 주교에 의해 부주교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1930년 이전의 문법서 『조선어 교본』을 덕원 인쇄소에서 발행했다. 문답개정 위원회에서는 라틴어로 된 교리서를 번역하는 담당이었다.
- 21) 『한국가톨릭대사전 11』, 8,545쪽 참조. 1911년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1916년에 『요한덕해(要漢德海)』사전을 편찬하여 한국에 파견되는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이 한글과 한문 공부할 때 기본교재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1928년에 『독한사전』, 1931년에 『한독사전』을 편찬하였다.
- 22) 한윤식, 「1931년 한국 첫 지역 공의회 개최-공의회 개최에 관한 논의와 공의회 거행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 21, 부산가톨릭대학교, 2010, 127~128쪽 재인용.

리문답 개정위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7항에 따라 『천주교요리문답』 간행은 문답개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1932년부터 1934년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여러 번 모임을 하며 진행되었다. 교리서 편찬과 개정을 위한 제1차 회의는 대구에서 1932년 9월 20일부터 10일간 열렸다. 이 회의에서 각 교구에서 보낸 초안이 심의되고, 다시 새로운 초안이 작성되어 전문가와 실무자들에게 보내져 검토하게 하였다. 그 결과 1933년 3월 6일 서울에서 열린 주교 회의에서 심의되었고, 심의, 결정된 것을 드망즈 주교에게 라틴어로 옮기게 하였다. 이 라틴어 본문은 동년 10월 3~8일에 열린 덕원 주교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본문으로 확정되었다. 다음 해 2월 3일, 서울에서 열린 편찬위원회는 라틴어 본문으로부터 한글 번역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²³⁾ 그리고 교리서 초안은 라틴어로 작성하여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거쳤다. 이는 기존 교리서보다 문답이 자세하고 명료한 문답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간행작업은 드망즈 주교가 작성한 라틴어 원문 교리서『*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로 1934년 8월 25일, 홍콩 나자렛 출판사에서 초판 발행되었다. 그리고 1934년 9월 3일, 대구 대목구장 드망즈 주교를 편집인으로, 서울 대목구장 아드리앙 라리보(A. Larribeau, 元亨根, 1883-1974) 주교를 발행인, 조제(Jaugey .Joseph, 楊秀春, 1884-1955) 신부를 인쇄인으로 하여 경성 천주교회 성서활판소(聖書活版所)에서 한글 본 『천주교요리문답』 제1판이 발행되었다.

표1. <1931년 6월 30일 기준, 한국천주교회 사제 분포>

	서울 대목구	대구 대목구	원산 대목구	평양 지목구	연길 지목구
외국인 선교사	26	19	20	18	21
한국인 사제	43	29	0	3	0

23) 『경향잡지』, 727(1932.2), 753(1933.3), 773(1934.1).

2) “교리교육에 관하여” 8항 - 17항 교령의 검토

앞서 살펴본 7항이 새로운 교리서 간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었다면, 8항부터 17항까지는 새 교리서에 추가해야 할 교리와 한국천주교회의 시노드에서 다루었던 기존 교리 내용이 조선 지역 공의회를 통해 결정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먼저 8항은 교회 법규(Praecepta Ecclesiae), 즉 성교사규(聖敎四規)와 관련하여 단일 교리서에 첨부할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다.²⁴⁾ 곧 『천주교요리문답』 성교사규 부분에 혼인법에 대한 규정과 교무금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라는 것이다.²⁵⁾ 교무금에 관한 법규가 첨부된 이유는 한국천주교회에 공소가 활성화되면서 신자들에게 공소 유지 경비와 그 외 교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인 공소전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²⁶⁾ 그러나 조선 지역 공의회는 교회 전례비용에 대해 직권자가 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였다.²⁷⁾ 곧 교회에 필요한 기금은 교구 관할권자에 의해 정해진 방법만을 적용해

24) Can. 8. Ubi paecepta Ecclesiae, simul cum precibus, Publice recitantur, secundum formulam inter nos hucusque receptam, tanquam titulus hujus formulae paemittantur verba: “Inter Paecepta Ecclesiae notanda sunt” vel alia similia. Praeterea, in catechismo ad catechumenorum fideliumque usum edendo ubi de Paeceptis Ecclesiae agitur, inseratur nova quaestio, cum responso, quo in mentem fidelium revocetur gravis obligatio Ecclesiae circa matrimonium mandata servandi, necnon Ecclesiae clerique necessitatibus pro posse subveniendi.

25) 『천주교요리문답』, 1934, 제1판, 제 五절 사규외에 두가지 법규, 156-159 문답.

26) 김택현, 「한국교회 교무금 제도의 기원인 공소전에 대한 고찰」, 61, 『교회사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22, 414-415. 한윤식, 「뫼텔 주교의 《서울 대목구 지도서》(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1923)」, 37, 『교회사연구』, 2011, 41-94. 1887년 간행된 『조선교회 관례집』에서 최초로 규정하였다. 이는 공소 신자들이 공소 유지를 위한 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공소전으로 불린 데서 알 수 있다.

27) Can. 70. Pro Denario Cultus et taxis funeralibus servantur normae uniformiter pro omnibus Missionibus Coreae ab Ordinariis determinatae. 공의회 교령은 이전까지 공소전을 지칭하던 ‘Pecunia Kongsso’라는 용어 대신 교무금을 지칭하는 ‘Denario Cultus’를 사용함으로써 공소전은 교무금이라는 명칭으로 한국교회 안에 정착한다.

야 하며, 어떠한 반대되는 관습도 거부하도록 규정하였다)²⁸⁾ 혼배법에 관한 법규 첨부 이유는 당시 한국 사회 관습과 연관이 있다. 이는 약혼자 사이에 상관없이 약혼한 남자나 여자의 집에 머물지 말라는 내용이고 이 규정을 어기면 혼인성사로부터 배제된다는 조항이다.²⁹⁾

9항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교리 교육과 종교 교육을 강조하였다.³⁰⁾ 이 조항은 『장주교윤시제우서』에서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본분임을 강조하는 부분과³¹⁾ 『대구 대목구 지도서』 37항, 93항, 그리고 『서울 대목구 지도서』 82항, 199항에도 제시된 조항이다. 곧 부모들의 종교 교육 의무는 자녀들이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고, 성체성사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또한, 두 번의 경고에도 자녀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면 성사 생활에서 배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10항은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해마다 문답으로 교리시험을 치는 규정이

28) Can. 72. Reprobata quacumque contraria consuetudine, missionarius, ad Denarium Cultus colligendum, methodum ab Ordinario statutam et eam solam adhibeat.

29) Can. 47. Quaecumque sit sponsorum aetas, districte prohibetur ne sponsa in domo sponsi vel sponsus in domo sponsae ullo sub praetextu commoretur. Hoc praeceptum violantes a receptione sacramentorum arceantur.

당시 한국에서는 어린 시기에 아들을 혼인한 여자의 집에 맡기거나 딸을 혼인할 남자의 집에 맡기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혼인에 관한 자유로운 합의가 결핍되었고 혼인 전에 정결을 지키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의회에서 제재하였다.

30) Can. 9. Missionarii saepe saepius in mentem fidelium revocent gravissimam obligationem, jure divino et ecclesiastico innixam, religiosae educationi prolis consulendi, a qua obligatione non eximuntur etiamsi filii scholas catholicas frequentent; et, speciatim, parentes hortentur ut, a teneris annis, liberos cognitioni et amori Dei initient, et, opportuno tempore, eos ad sacramenta recipienda disponant. Quodsi parentes hoc officium graviter neglexerint, et, bis moniti, nullum emendationis signum dederint, juxta prudens arbitrium Ordinarii a receptione sacramentorum arceantur.

31) 『한국천주교회사 3』, 208쪽 참조. 『삼본문답』(세례, 고해, 성체문답)과 아침, 저녁 기도를 가르칠 것을 권고하였다.

다.³²⁾ 이러한 규정이 정해진 이유는 초창기 한국천주교회가 교리문답을 외워 신앙을 이어온 전통을 공의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의회 입장은 당시 지역 공의회 총서기였던 드망즈 주교가 작성한 소견에서 알 수 있고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어른이나 아이나 다 하는 교리문답 암송과 사제 앞에서의 연중 교리시험은 가톨릭 교리에 대한 훌륭하고 정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데, 한국의 신자들은 복음화 기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를 행하고 있다.”³³⁾

또한, 10항은 『장주교윤시제우서』에서 신자들이 교리를 익혀야 함을 강조하는 데서 시작하여, 1887년에 발표된 『조선교회 관례집』에도 제시된 조항이며, 『대구 대목구 지도서』 44항과 『서울 대목구 지도서』 90항에도 제시된 조항이다. 곧 10항은 한국천주교회 신자들의 교리 이해 수준과 이에 대한 선교사들의 염려가 반영된 것이고, 신자들의 교리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공의회에 반영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영은 공의회를 통해 문답식 교리 방법이 한국천주교회 발전을 위한 전통임을 재확인한 조항이었다.

11항은 교리교사가 교리문답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주교들이 승인한 주석서를 따르라는 조항이다.³⁴⁾ 이 조항은 공의회 결정으로 발행

32) Can. 10. Ad cognitionem veritatum fidei melius conservandam; et juxta morem ab initio Ecclesiae Coreanae feliciter vigentem, salvis exceptionibus ab Ordinario pro diversitate personarum approbatis, verbalis catechismi recitatio exigatur, et quotannis, tam pro adultis quam pro pueris, examen de doctrina christiana habeatur.

33) AP. NS, vol. 1028(1929-1931), Rubr. 36/1, Prot. n. 4289/1931, f. 163. 한윤식 논문 재인용.

34) Can. 11. Sedulo invigilent missionarii ne explicatio catechismi soli catechistae arbitrio relinquatur, et curent ut ad normam Commentarii, seu “Libri Magistri” ab Ordinariis approbati tradatur.

된 『천주교요리문답』이 공식 교리서로서 갖는 위치가 어떠한지 알 수 있게 한다. 곧 교회가 인준한 단일 교리서를 사용하여 통일된 교리교육을 이행하라는 조항이다.

12항은 본당에서 성체강복 전이나 적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교리교육을 시행하라는 조항이다.³⁵⁾ 이 조항은 『조선교회 관례집』과 『대구 대목구 지도서』 36항, 그리고 『서울 대목구 지도서』 81항에서도 권고한 부분이다.³⁶⁾ 13항은 신자들이 세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선교사들이 그 방법에 대해 정확히 가르치라는 규정이다.³⁷⁾ 더불어 해마다 행해지는 찰고 때, 세례에 관한 질문을 확인하라는 규정이다. 이 조항 또한 『조선교회 관례집』, 『대구 대목구 지도서』 55항, 『서울 대목구 지도서』 99항부터 101항에서 제시한 조항이다.

14항은 예비 신자들에 관한 규정이다.³⁸⁾ 곧 미신적인 물건을 버리고, 몇 개월간 신앙을 받아들이 자발적인 의사 표현 기간에 관한 조항이다.³⁹⁾ 곧 예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우상 숭배적인 물건을 없애고, 가톨릭 신앙에 진지하게 귀의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이었다.

15항부터 17항까지는 교리교사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 제시하였다. 먼

35) Can. 12. In stationibus residentialibus, diebus domicis, ante benedictionem SS. Sacramenti, vel alio opportunitiori tempore, pueris et adultis fieri debet catechesis, seu ordinata catechismi explicatio.

36) 『서울 대목구 지도서』, 1923년, 81항. 사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매 주일 성인 신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교육을 가질 것을 권고하였다.

37) Can. 13. Curandum est ut omnes fideles de modo baptismum conferendi accurate edoceantur et in examine annuali de quo can. 10 hac de re interrogantur.

38) Can. 14. Nomine catechumeni veniunt illi qui, Superstitiosis rebus e domo rejec-tis. per actum publicum ab Ordinario determinatum, fidem catholicam amplec-tendi voluntatem manifestaverunt, Catechumeni saltem per sex menses probari debent.

39) 이 조항에 제시된 예비자 기간은 『조선교회 관례집』과 『서울 대목구 지도서』 97-101항에 서는 40일로 규정하였고, 『대구 대목구 지도서』에는 3개월로 규정하였다.

저 15항은 정주 교리교사와⁴⁰⁾ 순회 교리교사에⁴¹⁾ 관한 부분이고 선교사들과 협력하라는 규정이다.⁴²⁾ 이 조항은 『대구 대목구 지도서』 201~204항, 『서울 대목구 지도서』 108, 110~111항에서 제시된 부분이다. 16항은 교리교사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다.⁴³⁾ 공의회에서는 사적 권위에 의해 교리교사 직무를 가질 수 없고, 주교나 선교사들이 이 직무를 수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교리교사로 임명된 이들에게는 주교나 선교사가 서명한 자격증 수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조항은 『서울 대목구 지도서』 109항에 제시되었다. 17항은 교리교사들의 연중 피정을 의무화했고, 이에 따른 비용은 주교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담당 지역교회가 지출하도록 규정했다.⁴⁴⁾ 이 조항 또한, 『대구 대목구 지도서』 205항, 『서울 대목구 지도서』 112항에 제시되었다.⁴⁵⁾

40) 정주 교리교사는 공소회장을 일컫는데, 이들은 정기적인 보수 없이 신자 공동체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다.

41) 순회 교리교사는 전교 회장을 일컫고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비신자들 사이에서 신앙을 전파하는 이들이다.

42) Can. 15. *Nomine catechistae in his canonibus veniunt ii laici qui cum missionario et sub ejus directione in apostolatu collaborant. Duplicis sunt generis, scilicet:*

a) *catechistae resideutes qui in christianitatibus Jam constitutis rei catholicae conservandae fovendaeque et regulariter quidem sine remuneratione incumbunt;*

b) *catechistae ambulantes qui inter infideles propagationi Fidei operam dant, et quidem regulariter salarium accipiunt.*

Non tantum viri sed etiam mulieres in hoc duplex munus cooptari possunt.

43) Can. 16. *Nemini licet munus catechistae propria vel privata fidelium auctoritate assumere. Ordinarius et missionarius ad hoc munus conferendum unice competentes sunt. Catechistae legitime designato documentum authenticum seu diploma ab Ordinario et missionario subsignatum tradatur et, cessante munere, retrahatur.*

44) Can. 17. *Singulis annis juxta dispositiones Ordinarii fiat Pro omnibus catechistis secessus cujus expensis. ex redditibus districtus provideatur.*

45) 『서울 대목구 지도서』, 109~110항. 112항에서 뫼텔 주교가 강조한 5가지 중, 교리교사와 관련하여 연중 피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회장의 역할은 드망즈 주교가 『대구 대목구 지도서』를 바탕으로 <회장의 부분>을 발행했고, 이후 뫼텔 주교가 서울

이렇게 교리교육에 관하여 8항, 9항, 12항, 14항, 15항, 16항, 17항은 베르뇌 주교가 보낸 『장주교윤시제우서』에서 시작되어 『조선교회 관례집』과 『대구 대목구 지도서』, 그리고 『서울 대목구 지도서』에서 이미 규정한 조항들이었다. 물론 15항에서 17항까지 제시된 교리교사에 관한 자격과 의무에 대한 부분은 『장주교윤시제우서』와 『조선교회 관례집』에는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교리교육에 관하여”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조선 지역 공의회에서 교령으로 확정한 데에 의미가 있다. 이는 당시 5개 교구 선교사들의 사목활동과 선교 활동이 통일되게 하도록 공동 지도서를 마련하고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내는 것이 공의회의 구체적인 목적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곧 공의회에서는 조선 대목구의 기존 시노드에서 논의했던 중심 사안을 심화시키며 규정으로 제정한 것이다. 그 중, 교리교육에 관한 조항들 또한, 공의회를 통해 통합되게 하였고, 교리서 개혁의 정점을 이루게 한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의 결과로 공식 교리서이자 단일 교리서인 『천주교요리문답』이 탄생하게 되었고, 현대 교리서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였다.

2. 교리서의 간행과 활용 : 라틴어본과 한글본

1)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의 “EXPLICATIONES” 편집

앞서 제시한 대로 드망즈 주교가 작성한 『천주교요리문답』 라틴어 원문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은 『천주교요리문답』 한글판본 이전에 발행되었다.⁴⁶⁾ 곧 최종 결정된 교리 내용을 라틴어 본문

대목구 신자들을 위해 르 장드르 신부에게 <회장본분>을 발행하게 하였다.

46) 제1판은 당시 12전에 판매되었다.

으로 먼저 작성하고, 그 본문을 심의, 확정된 후 한글 번역으로 발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논문에서는 한글판과 라틴어판이 단순히 같은 해에 나왔다고 했지만, 라틴어판이 먼저 나오고 얼마 후에 한글판이 나왔다.⁴⁷⁾ 부연하면,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은 1934년 8월 25일에 이미 문답개정 위원장 드망즈 주교 인준으로 대구에서 발행되었다.⁴⁸⁾ 그리고 6일 후인 8월 31일에 인쇄하여 9월 3일, 『천주교요리문답』 한글 번역본 제1판이 발행되었다. 이는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 천주교회가 함께 사용할 공식 교리서였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또한, 조선 지역 공의회에서 단일 교리서로 발행하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의미로 간행된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와 『천주교요리문답』은 같은 구성과 내용으로 발행되었고,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표2.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와 『천주교요리문답』 구성⁴⁹⁾

	『 <i>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i> 』	『천주교요리문답』
구성	1권, 3편, 16장 320문답	1권, 3편, 16장 320문답
언어	라틴어 표기	한글 표기

47) 최석우, 「한국교회 교리서의 변천사」, 『司牧』 35, 1974, 10쪽. “위원회는 약 2년만인 1934년, 대망의 교리서를 간행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천주교요리문답』이다. 같은 해 라틴어 번역판이 나왔는데 在韓 외국인 선교사들로 하여금 한글 귀절의 뜻을 명확히 하고 교리강의 준비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였다.” 최석우 신부의 선행연구는 교리서 변천사 부분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고, 이 연구의 영향력으로 『천주교요리문답』 내용에 관한 여러 논문이 인용되었기에 제시하였다.

48)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 p.2, Taikou, 25 Augusti 1934.
Fr. DEMANGE. Ep.Vic.ap.de Taikou. Praeses Commissionis intermissionalis Catechismi.

49)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1934 INDEX와 『천주교요리문답』1934 목차 비교는 부록1에 제시하였다.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	『천주교요리문답』
서언 (1-12)	EXPLICATIONES Procemium	서언
1편 De Veritatibus Credendis 믿을 교리 (13-110문답)	De Deo(13-21), De Trinitate(22-25), De Creatione, angelis & daemonibus(26-32), De Homine(33-43), De Peccato originali(44-49), De Deo Redemptore(50-58), De Redemptione(59-68), De Spiritu Sancto.(69-74), De Ecclesia.(75-89) De Communione Sanctorum.(90-92), De Potestate remittendi peccata.(93-94), De Novissimis.(95-110)	천주(13-21), 삼위일체(22-25), 천지창조, 천신, 마귀(26-32), 사람(33-43), 원죄(44-49), 구세주(50-58), 구속(59-68), 천주성신(69-74), 천주교회(75-89) 모든 성인의 통공(90-92), 사죄권(93-94), 사말(95-110)
2편 De Praeceptis Adimplendis 지킬 계명 (111-179)	De Decalogo(111-136), De Restitutione(137), De Substantia omnium mandatorum Decalogi(138), De Officiis proprii status(139), Praeceptis Ecclesia(140-159), De Virtutibus(160-170), De Peccatis Personalibus(171-179)	천주십계(111-136), 보환(137), 십계대의(138), 본지위의 본분(139), 천주교회 법규(140-159), 덕행(160-170), 본죄(171-179)
3편 De Mediis Obtinendi Gratiam 성총을 얻는 방법 (180-320)	De Gratia(180-193), De Oratione(194-202), De Sacramentis(203-210), De Baptismo(211-223), De Confirmatione (224-235), De Poenitentia (236-273), De Indulgentiis(274-279), De Eucharistia(280-301), De Extrema Unctione(302-306), De Ordine(307-311), De Matrimonio(312-318), De Sacramentalibus(319-320)	성총에 관한 총론(180-193), 기도(194-202), 성사(203-210), 성세성사(211-223), 결진성사(224-235), 고해성사(236-273), 대사(274-279), 성체성사(280-301), 종부성사(302-306), 신품성사(307-311), 혼배성사(312-318), 준성사(319-320)
Appendices 부록	De Praeparatione adultorum moribundorum ad Baptismum. De modo Confessionem peragendi.	대인임종대세예비, 네 가지 교리, 조건대세경문, 고명규식

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와 『천주교요리문답』은 같은 구성과 내용으로 간행되었다. 이러

한 공통점은 두 교리서 본문을 살펴본 결과, 라틴어 본문 내용을 한글로 그대로 번역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반면, 두 교리서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천주교요리문답』에는 없지만,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의 서언 전에 편집된 “EXPLICATIONES”(설명)에서 교리서 발행목적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서 알 수 있다. 곧 십이단의 활용,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교리문답에 대한 부분, 참고를 할 때 교리교사의 역할, 그리고 외울 것, 배워 익힐 것, 등에 관한 설명이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 공통 교리문답 라틴어 번역본은 선교사들에게 제공된다는 부분이다.⁵⁰⁾ 이것은 교리서 문답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 더 쉽게 교리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전문 용어의 명확한 의미를 지니도록 발행되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쉽게 실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번역되었음을 강조하였다.⁵¹⁾

둘째, 교리서를 배우기 이전에 12가지 기도문, 곧 십이단을 먼저 배우라고 가르쳤다.⁵²⁾ 이는 1. 성호경, 2. 천주경, 3. 성모경, 4. 종도신경, 5. 삼종경, 6. 고죄경, 7. 소회죄경, 8. 영광경, 9. 천주십계, 10. 천주교회 법규 중 사구, 11. 삼덕송(신덕송, 망덕송, 애덕송), 12. 봉헌경이다.⁵³⁾ 반면 『천주

50) Haec versio latina textus coreani catechismi communis offertur missionariis.

51) Ut ideam materiae et divisionum, citius apparentem quam in textu coreano, in illa invenientes, facilius praeparare possint suas catecheses - ut significationem terminorum technicorum indubiam habeant - et tandem ut neomissionarii externi utantur hoc libello, cujus textus, etiam serviliter, phrasim coreanam vertit pro facili, et immediate practico, studio linguae

52) Catechismi studium praecedere debent studium et recitatio duodecim Precum quae sunt:

53) 1. Signum Crucis; 2. Pater; 3. Ave; 4. Credo; 5. Angelus; 6. Confiteor; 7. Actus Contritionis 8. Gloria Patri; 9. Decalogus; 10. Praecepta quatuor inter praecepta Ecclesiae; 11. Actus fidei, spei et caritatis; 12. Actus oblationis. 한글 용어는 『천주교요리문답』 12단에 적혀있는 단어로 제시했다. 그런데 라틴어 원문 기도 순서가 위에 제시된 순서인데, 『천주교요리문답』 12단에는 다른 순서로 편집되었다. 곧 성호경, 삼종경,

교요리문답』 십이단에는 라틴어 원문과 다른 순서인 1. 성호경, 2. 삼종경, 십이단 : 3. 천주경, 4. 성모경, 5. 종도신경, 6. 고죄경, 7. 소회죄경, 8. 영광경, 9. 천주십계, 10. 천주교회 법규 중 사규, 11. 삼덕송(신덕송, 망덕송, 애덕송), 12. 봉헌경으로 편집되었다.

셋째, 십이단 기도 암송에 대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로 첫영성체 어린이들이 암송해야 할 기도는 1번 성호경부터 7번 소회죄경(오늘날 통회의 기도) 까지도. 두 번째, 노인과 이와 유사한 이들이 암송해야 할 기도는 1번부터 11번 삼덕송 까지도. 세 번째, 십이단 전체 기도는 세례를 받은 일반 그리스도인이 암송해야 할 기도문이라고 제시하였다.⁵⁴⁾

넷째, 새로 발행된 단일 교리문답에는 삼중 교리문답이 포함되었다는 부분이다. 곧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요리문답, 노인들과 지능이 약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교리 문답으로 구성되었다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발행된 공통 교리문답은 이를 모두 포함한 완전한 교리문답이라고 강조하였다.⁵⁵⁾

다섯째, 교리문답을 익히고 외울 때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교리문답에서 질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교리교사가 질문하면, 질문 받는 이가 응답을 하는 것이다. 또한, 한글로 발행된 교리문답 본문에 특별한 기호로 외울 것과 배워 익힐 것을 구분해 놓았다고 했다.⁵⁶⁾ 즉 암기

십이단 : 천주경, 성모경, 종도신경, 고죄경, 소회죄경, 영광경, 천주십계, 천주교회 법규중 사규,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 봉헌경 순이다.

- 54) Exigitur recitatio : 7 priorum parvulis ad primam communionem accedentibus: 11 priorum a senibus et assimilatis, omnium 12 a communibus christianis
- 55) Tres enim distinguuntur Categoriae personarum pro quibus Triplex catechismus in hoc unico catechismo continetur:
 1° Catechismus minor parvulorum
 2° Catechismus minor senum qui inservit quoque pro illis qui, etsi non senes, habent intelligentiam debilem,
 3° Catechismus communis id est praesens catechismus completus.
- 56) Pro recitatione notandum est quod:

식과 함께 배워 익히며 교리문답을 활용하라는 부분이다.

여섯째, 외울 교리문답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어린이를 위한 15개 문답으로 모두 외울 것으로 제시하였다.⁵⁷⁾ 그리고 어른을 위한 16개 문답으로, 어린이 문답 15개를 포함하고 있다.⁵⁸⁾ 또한, 배워 익힐 것 45개를 구분하여 제시했다.⁵⁹⁾

일곱 번째, 12살 이상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세례를 받기 전 일반 예비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통 교리문답을 구분해 놓았다. 먼저 134개 문답을 단어 그대로 외울 것으로 규정했고, ITALICS 글씨체로 인쇄된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186개 배워 익힐 문답은 바른 글자체로 인쇄된다고 제시했고,⁶⁰⁾ 다음 표에 구분하였다.

1. Interrogationes non sunt memoriter discendae, et regulariter, a catechista ponuntur, responsione tantum facta ab interrogato ;

2° Distinguuntur quaestiones de verbo ad verbum recitandae, quae, in textu coreano, speciali signo notantur, et quaestiones quarum cognitio sensus tantum exigitur.

57) Catechismus Minor Parvulorum, qui etiam specialiter editur, comprehendit 15 quaestiones omnes de verbo ad verbum recitandas, scilicet: 1-13-22-23-50-52-60-236-241-246-259-280-297

58) II- Catechismus Minor Senum, qui etiam specialiter editur, comprehendit :
1°-De verbo ad verbum recitandas, 31 Quaestiones, scilicet praeter 15 catechismi parvulorum 16 sequentes : 2-35-42-70-86-99-195-206-211-224-226-253-261-286-302.

59) 2-Quoad sensum cognoscendas 45 sequentes: 14-15-16-17-18-19-27-28-31-43-45-49-65 -67-75-76-100-101-102-103-104-105-106-111-180-181-215-220-235-244-247-263-270-272- 278-288-299-300-306-307-310-312-316-317-318.

60) III. Catechismus Communis, quem omnes christiani, a duodecimo anno, et, pro baptismo recipiendo, catechumeni ordinarii, cognoscere debent. Est praesens Catechismus qui comprehendit : 1° 134 quaestiones de verbo ad verbum recitandas. In textu coreano speciali signo notatae, hic imprimuntur ITALICE id est litteris inclinatis: 2° 186 remanentes quaestiones quae, quoad sensum tantum, sunt cognoscendae. In hoc textu, litteris rectis imprimuntur

표2.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1934, 문답 기준

문답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
외울 것 (ITALICS) 134 문답	1-2-4-5-6-7-13-14-15-16-17-18-19-21-22-23-25-26-28-31-33-34-35-42-43-45-46-50-52-56-60-65-67-70-75-78-79-86-90-93-96-99-100-101-102-103-104-105-106-109-110-112-113-114-118-121-122-124-125-126-131-132-133-134-135-136-137-141-142-148-153-154-156-160-163-171-173-174-176-180-181-183-195-196-203-206-211-214-215-218-220-224-226-234-235-236-241-242-246-247-253-254-255-258-259-261-263-266-267-269-270-271-272-274-280-281-282-286-288-293-294-295-296-297-298-299-300-302-307-312-313-316
배워 익힐 것 186 문답	3-8-9-10-11-12-20-24-27-29-30-32-36-37-38-39-40-41-44-47-48-49-51-53-54-55-57-58-59-61-62-63-64-66-68-69-71-72-73-74-76-77-80-81-82-83-84-85-87-88-89-91-92-94-95-97-98-107-108-111-115-116-117-119-120-123-127-128-129-130-138-139-140-143-144-145-146-147-149-150-151-152-155-157-158-159-161-162-165-166-167-168-169-170-172-175-177-178-179-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7-198-199-200-201-202-204-205-207-208-209-210-212-213-216-217-219-221-222-223-225-227-228-229-230-231-232-233-237-238-239-240-243-244-245-248-249-250-251-252-256-257-260-262-264-265-268-273-275-276-277-278-279-283-284-285-287-289-290-291-292-301-303-304-305-306-308-309-310-311-314-315-317-318-319-320

반면, 『천주교요리문답』에서는 “이 문답을 다 배워 익힐 것이나 팔호 있는 것은 불가불 다 외워야 함”이라고 교리서 목록 전에 “주의”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본문 교리 내용에서는 외울 것은 “[I]” 등으로 표기하였고, 배워 익힐 것은 “3” 등으로, 팔호 표기로 외울 것, 팔호 표기가 없는 것은 배워 익힐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 안에 “EXPLICATIONES”(설명)을 추가 편집한 부분 외에는 두 교리서의 구성과 내용은 같았다. 본문에서의 차이점이라면 목차에서만 일부분 발견되었고 다음과 같다.

첫째, 라틴어 원문 목차 도입에는 “Proemium Finis hominis. Imple-

tio finis per veritates(서문, 인간의 종말, 진리를 통한 궁극적 완성)이라고 표기되었다. 반면, 『천주교요리문답』 목차에는 이러한 표기가 없고, 서언이 시작된 본문 제목에 “서언 천주교”로 표기하였다.

둘째, 26-32 문답을 설명한 부분으로 “De Creatione, angelis & daemonibus.(천지창조, 천신, 마귀)”라고 표기했는데, 『천주교요리문답』은 목차에서는 “천지창조”라고 표기했고,⁶¹⁾ 본문 목록에서는 원문을 따른, “천지창조 천신 마귀”라고 표기되었다.

셋째, 95-98 문답을 설명한 “De Morte.(죽음)”을 『천주교요리문답』에서는 “주검”이라 표기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일’을 뜻하지만, ‘주검’은 ‘죽은 상태’라는 뜻과 ‘시체’라는 뜻이 있다. 이러한 표기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주검으로 표현하는데 더욱 의미를 두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이후 『천주교요리문답』 판본이 거듭되면서 주검은 원본과 같이 죽음으로 표기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137 문답을 설명한 “De restitutione.(보상)”과 138 문답을 설명한 “De substantia omnium mandatorum Decalogi.(십계대의)”는 라틴어 원문 목차에서는 각각의 내용을 구분하여 표기했다. 반면, 『천주교요리문답』은 “보완, 십계대의”를 하나의 목차로 편집했고,⁶²⁾ 본문 내용에서는 원문의 표기를 따랐다.

다섯째, 156-159 문답을 설명한 “De aliis duobus Ecclesiae praeceptis.(사규외에 두 가지 법규)”는 라틴어 목차에서는 “Articulus IV. De quarto praecepto.” 다음에 제목만 표기하였다. 반면, 『천주교요리문답』에서는 “제四절 제四규”에 연결하여 “제五절 사규외에 두가지 법규”로 표기했다.

61) 『천주교요리문답』, 제1판과 2판에서는 이러한 편집이지만, 판본이 거듭되면서 라틴어 원문에 제시된 “천지창조, 천신, 마귀”를 그대로 편집하였다.

62) 각주61)과 마찬가지로 판본이 거듭되면서 “보완”과 “십계대의”는 원본과 같이 따로 분류된 편집을 따랐다.

여섯째, 282-284 문답을 설명한 “De Praesentia reali(실재존재)”를 『천주교요리문답』에서 “면주 형상 속에 예수 참으로 계심”으로 풀어서 표기했다.

이렇게 표기가 다른 것 이외에는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와 『천주교요리문답』의 전체 내용과 구성은 같았다. 이러한 편집의 이유는 『천주교요리문답』이 5개 교구로 발전된 한국천주교회 내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성직자, 그리고 신자들의 통합을 위해 간행된 속성 교리서였고, 쉽게 습득하기 위해 단답형 교리서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2) 『천주교요리문답』 활용과 내용 분석 : 『경향잡지』

『경향잡지』에서는 『천주교요리문답』 발간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934년 당시 기준으로, 70~80년 전 박해 시기에 몇몇 안 되는 선교사들이 조선 지역 전교를 위해 새 교리서가 필요했지만, 간행할 수 없었다. 다만 한 문본 교리서 『성교요리문답』을 번역하여 조선 신자들에게 문답(問答) 교리로 전달해왔다.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이 된 시기에 이르러 『성교요리문답』이 서양 교리서와 비교했을 때 구식 교리서여서, 1931년에 5교구 주교 회의에서 새 교리서를 편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새 교리서 『천주교요리문답』은 여러 신부가 여러 번 회의를 열고 의논, 교정한 교리서로서 서양 문답과 비슷하고 교리를 설명함이 매우 명백한 특징을 갖는다.”⁶³⁾

『경향잡지』에서는 “『천주교요리문답』에 대해 연구함”이라는 주제로 1935년 9월, 814호부터 1938년 2월, 871호까지 총 41회 연재하였다.⁶⁴⁾

63) 『경향잡지』, 제29권 제9호 통권 814호~815호, 1935, 9-10.

64) 연재된 목록은 논문 뒤 부록2에 첨부하였다.

연재 내용을 살펴보면, 814호부터 834호는 『천주교요리문답』 서언에 대해, 838호부터 871호까지는 믿을 교리 중, 천주, 삼위일체, 천지창조에 대한 문답만을 연재하였다. 연재물의 특징은 제목에서처럼 『천주교요리문답』을 자세히 분석하고 제시한 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교리 내용을 분석하고 연재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 『천주교요리문답』 서언에 관해 설명한 814호부터 817호를 살펴보면 『천주교요리문답』 교리 내용이 기존 교리서보다 발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첫 번째 조목,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낫나뇨?”에 따른 답을 4번에 걸쳐 연재한⁶⁵⁾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사용되었던 『성교요리문답』 내용을 제시하여 첫 문답을 좀 더 쉽게 설명하였다.⁶⁶⁾

둘째, 『천주교요리문답』에 담긴 신학적 내용이 기존 교리서보다 깊이 있게 편집했음을 알렸고,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천주교요리문답』의 특징은 서언에 교리 총론이 제시된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818호에서 천주교가 참종교인 이유를,⁶⁷⁾ 820호에서 믿을 교리, 지킬 계명, 성총을 얻는 방법으로⁶⁸⁾ 4조목, “천주교요리는 몇

65) 814~817호, 1935. 9-11.

66) 817호, 649~652쪽. 『성교요리문답』의 첫 물음의 답은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령혼을 구하기위하여 세상에 낫나니라”이다. 이러한 인용은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낫다”는 교리를 명백히 설명한 것이고, 그 이치와 본뜻을 간단히 드러내었다. 『천주교요리문답』에서 사람의 중향은 천주의 본성과 특성을 알아 순복하고 자기 마음의 능력을 다하고 받들어 섬김이라고 했다. 천주를 먼저 알고 난 후에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무한한 욕망을 완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천주교요리문답』의 첫문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낫나뇨?”이고, 그에 대한 답이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낫나니라”라고 설명하였다.

67) 1935.11, 818호, 681~685쪽. ㉠ “사람이 천주를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려면 반드시 어찌케 할것이뇨?”, “천주교는 무엇이뇨?”에 대한 답이다. 첫째, 천주 친히 세우신 천주교를 믿고 봉행하면 벌써 이 세상의 온갖 불평이 물러가고, 둘째, 이러한 근심 고통이 없으면 양심의 평화를 보전할 것, 셋째, 사람의 중향인 진복을 얻는 곳은 천주교를 봉행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68) 1935.12, 820호, 745~748쪽.

뜻을 포함하나요?”에 “천주교 교리는 세뜻을 포함한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믿을 교리인 종도신경의 역사와 성교회에서 신경이 갖는 의미를 821호에서 설명하였다⁶⁹⁾. 822호는⁷⁰⁾ “지킬 계명은 무엇이뇨”를 천주 십계명으로 설명하였다.⁷¹⁾ 822호의 특징은 십계명 개념을 단순히 종교의 계명만을 지키라는 전달보다, 사람의 자유의지, 양심, 자유롭게 정의를 따르는 것, 세상과 이웃을 위해 지킬 계명이라고 정의했다.⁷²⁾ 823호는⁷³⁾ “성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뇨?”에서 성총은 천주성(天主性)에 참여하는 오묘한 은혜라고 설명하였다. 824호는⁷⁴⁾ 일곱 가지 성사가 사람 안에 어떠한 영향과 생활로 이끌고, 인생의 각 단계에 필요한 은총을 성사로써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계시(啓示)에 대한 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825호부

- 69) 1936.1, 821호, 8~10쪽. 로마 신경, 이탈리아, 서반아,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된 서로마 신경이 있고, 이베네오 신경, 시리아의 성 이나시오 신경,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썼던 신경 또한, 로마신경과 매우 비슷하다고 부연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열교인들이 배척하는 신덕 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성 아오스딩 또한, 1500년 전에 종도신경을 외우기를 천명하였고, 매일 종도신경을 외우는 영혼의 신덕을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신경들의 특징은 라틴어나 히랍어로 쓰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랍어 방언으로 쓰였다는 가설과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본말이었기 때문에, 종도신경은 1800년 전에 종도들이 지은 것을 현대까지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70) 1936.1, 822호, 39~49쪽. “『천주교요리문답』에 대해 연구함”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연재되었다.
- 71) 천주 십계명을 마태오 복음 19장 18절을 인용하여 사람의 영신 생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천주께서 10가지로 본 규정을 제시한 것이고, 인류와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정했다고 설명하였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천주께로 향하려는 의미이다. 4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사람의 양심에 해당하며,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친구, 동족에게 할 본분을 지키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평화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4계명에서 8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생명을 감사히 여기기 위해 지키는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9계명과 10계명은 사람의 양심을 살피고, 악한 마음의 근원이 되는 원인을 살펴 천주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 설명하였다.
- 72) 이는 오늘날 교회의 사회 참여를 지칭하는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JPIC,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을 연상케 한다. JPIC는 영문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개념이다.
- 73) 1936.2, 70~76쪽.
- 74) 1936.2, 103~106쪽.

터 827호에서는 “천주어씨케 이교리를 가라쳐 주시뇨?”, “계시는 무엇이뇨”에 대해 설명하였다.⁷⁵⁾ 826호는⁷⁶⁾ 계시의 개념을 구약 성경 인물로, 827호는⁷⁷⁾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계시는 무엇이뇨, 계시는 천주친히 진리를 사람에게 가라치사 령적으로 그 진실됨을 증명하여주신 것이니라”로 설명하였다. 831호에서는 “성경은 무엇이뇨”, “성전은 무엇이뇨?”를⁷⁸⁾ 833호와⁷⁹⁾ 834호에서⁸⁰⁾ 설명하였다. 특징적인 부분은 성경이 천주의 계시임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827호 내용과 연관시켰다. 또한, 성경 인물과 철학자 등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⁸¹⁾

세 번째로, 천주에 대한 교리 설명이다. 838호⁸²⁾, 839호는⁸³⁾ “천주는 누구시뇨?”에 대해 지구와 태양계, 그 외 과학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천주의 존재를 설명하였고, 독자들이 쉽고, 흥미롭게 천주교 교리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840호, “인과물로 천주의 존재를 증명함”,⁸⁴⁾ 841호, “천주의 존재, 인류의 의식으로 천주의 존재를 증명함”,⁸⁵⁾ 842호

75) 1936.3, 141~145쪽.

76) 1936.3, 171~173쪽. “계시는 무엇이뇨?(2)”

77) 1936.4, 205~208쪽. “계시는 무엇이뇨?(3)”

78) 1936.6, 333~337쪽. 성경에 대해서는 성 안토니오의 예화로 천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성경에 실린 글이라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79) 1936.7, 396~399쪽. 성경에 관해 설명

80) 1936.7, 430~433쪽. 성전에 관해 설명

81) 창세기에 제시되었던 여러 인물로 천주 계시가 이루어졌음을 다시 강조하였다. 세 번째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은 천주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옴이라고 설명하였다.

82) 1936.9, 553~556쪽.

83) 1936.10, 579~584쪽.

84) 1936.10, 615~619쪽.

85) 1936.11, 648~651쪽. 시베리아 툰드라, 브라질, 아프리카 등의 종교의식을 소개하여 초자연적 권력자의 존재를 믿는 것에 일치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천주를 믿는 것은 인성의 품위를 위하고 그 존귀함을 위하여, 이성을 위하여 최고 권력자인 천주의 현존을 인정하는 것이다.

에서 천주의 존재를 설명하였다.⁸⁶⁾ 그리고 843호⁸⁷⁾, 845호는⁸⁸⁾ “천주는 누구시뇨”에 대해 “천주는 절대 완전하고 순진한 신이시다”라고 설명하였다. 846호는⁸⁹⁾ 천주의 완전성에 대해 “천주가 영원하신가”에 대해, “천주 영원하시니 삶과 마침도 없고, 어떠한 변하심도 없다”를 설명하였다. 847호는⁹⁰⁾ “천주 무량하시뇨”에 대해, 848호에서는⁹¹⁾ 천주의 무량성을 성경 인용으로 설명하였다.⁹²⁾

850호와⁹³⁾ 853호,⁹⁴⁾ 854호는⁹⁵⁾ “천주 전지하시뇨”에 대해 “사람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알으시나니라” 답을 설명하였다. 856호는⁹⁶⁾ “천주 공의하시뇨”를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과 이스라엘의 유배 역사로 설명하였다.⁹⁷⁾ 857호,⁹⁸⁾ 858호는⁹⁹⁾ “천주전능하시뇨”에 대해 “하고저하시는바는

86) 1936.11, 675~677쪽. 인간은 참된 도덕적 생활과 사람의 품위를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모습은 천주의 존재를 확신하는 절대적 믿음이고, 내적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87) 1936.12, 713~716쪽.

88) 1937.1, 9-11쪽.

89) 1937.1, 40~44쪽.

90) 1937.2, 74~77쪽.

91) 1937.2, 102~104쪽.

92) 시편 138, 에페 4.6, 로마 11, 16, 콜로새 1, 16. 천주는 어떤 공간에도 국한될 수 없고, 무소부재(無所不在) 하시어 모든 시간과 측량의 원인이 되고, 모든 것은 천주 활동의 영향을 받아 생긴 것이라 설명하였다. 천주의 무량성은 모든 피조물에서 활동할 때 서로 다른 모양으로 활동하시고, 그 영향력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천주 무량하시뇨”에 대한 답은 “천주 무량하시니 업스시거나 아니게신 곳이 업서 어대던지 현존하시나니라”고 제시하였다.

93) 1937.3, 164~167쪽.

94) 1937.5, 249~251쪽.

95) 1937.5, 280~283쪽.

96) 1937.6, 327~333쪽.

97) “공의하다”라는 말은 모든 덕행을 포함하는 성인, 천주의 친우라고도 하고 사추덕(四樞德) 중의 하나인 의덕(義德)을 일컫는다.

98) 1937.7, 361~364쪽. 편집자의 실수로 지난 856호와 이번 857호의 차례가 바뀌었다고 첨부하였다.

99) 1937.7, 383~386쪽.

무엇이든지 다하신다”를 설명하였다. 859호는¹⁰⁰⁾ “천주전선하시뇨”에 대해, 860호는¹⁰¹⁾ “전선하신 천주 이세상 환난병고를 막지안흐심은 어찌이뇨”에 대해 설명했고, “천주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보속하고 공로를 세울 기회를 주어 사후영복을 장만하라고 하시는 것이다.”를 설명하였다. 861호는¹⁰²⁾ “천주 인자하시뇨”에 대해 “천주인자하시니 자기죄를 통회하는자는 용서하시느니라”를 설명하였다.

863호¹⁰³⁾, 864호,¹⁰⁴⁾ 865호,¹⁰⁵⁾ 866호는¹⁰⁶⁾ “천주몇위계시뇨?”, “하나이신 천주가 몇위를 포함하여계시뇨?”, “세위 서로 관계가 엇더하시뇨?”, “세위서로놓고나즘과 먼저계시고 후에계신분별이잇나뇨?”에 대해 설명하였다. 869호,¹⁰⁷⁾ 871호는¹⁰⁸⁾ “천지를 조성하신자라함은 무슨뜻이뇨?”에 대해 지질학과 고생물학, 그리고 성경에 제시된 창조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렇게 『경향잡지』는 통권 814호에서 871호까지 “『천주교요리문답』을 연구함”이라는 주제로 3년간 연재하였다. 그러나 『천주교요리문답』 서언과 믿을 교리 중, 천주, 삼위일체, 천지창조에 대한 26개 문답만이 연재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는 『천주교요리문답』이 발행된 1934년에 『경향잡지』는 제778호부터 32면으로 증면되어 발행되었지만, 1937년

100) 1937.8, 417~421쪽. 선(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며 선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다른 것에 적합한 것이다. 이러한 선은 천주의 본성이다. “천주전선하시니 모든 선의 근원”이라는 말은 천주의 본질적 선하심, 무한한 완전성, 인자함이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표현된다. 즉 “천주는 사랑이시다”라는 성경 말씀이 천주의 본질이다. 천주 강생은 천주의 인후(人後)하심과 관대하심의 최고결집이다. 이러한 천주의 본성은 “천주전선하시니 모든 선의 근원이시요 또한 우리기구를 즐겨드러주시나니라” 답변에서 드러난다.

101) 1937.8, 441~446쪽.

102) 1937.9, 461~465쪽.

103) 1937.10, 511~513쪽.

104) 1937.10, 530~532쪽.

105) 1937.11, 559~563쪽.

106) 1937.11, 578~582쪽.

107) 1939.1, 4~9쪽.

108) 1938.2, 54~60쪽.

시점이 중일전쟁 발발 직전이었고, 일제의 본격적인 전시 체제 확립이 이루어진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식민지화 정책에 가속이 붙던 1938년에 들어 일제의 간섭과 통제로 24면으로 감면된 것이다.¹⁰⁹⁾

『경향잡지』는 전체 교리 내용을 연재하지 않았지만, 서언에서 교리서 총론을 제시하고, 종도신경에 대한 의미에 대해 중점을 두었고, 천주 존재에 대해서는 신학적 접근으로 풀이하였다. 또한, 성경 인물과 철학자 등을 인용하여 『천주교요리문답』이 이전 교리서보다 신학적 주제와 내용을 깊이 있게 구성하였음을 전달하였다. 특히 『천주교요리문답』 발행 다음 해부터 3년간 연재된 것은 공식 잡지를 통해 한국천주교회의 공식 교리서로 제시한 것이다.

『천주교요리문답』은 1934년 9월에 제1판이 발행된 후, 동년 12월 10일에 제2판이 발행되었다. 이후 1937년,¹¹⁰⁾ 1946년, 1950년, 1954년, 1958년, 1959년, 1964년, 그리고 1965년까지 지속해서 발행되어 1967년, 『가톨릭 교리서』가 발행될 때까지, 33년간 한국천주교회 공식 교리서로써 이어졌다. 오늘날 『천주교요리문답』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당시 교리서가 발행된 과정을 되새겨 보면 공식 교리서로서 한국천주교회의 맥을 이어온 단일교리서라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론

『천주교요리문답』 발행은 한국천주교회의 교리서 개혁이 어떻게 이어졌고, 초기 한국교회 교리교육 전통이 어떠한지를 재확인하게 해준다. 곧

109) 『경향잡지』는 1940년 2월 제34권 919호부터 발행주기를 이전의 반월간에서 매월 15일에 발행되는 월간으로, 잡지 전체 지면도 24면에서 16면과 12면으로, 또한, 8면으로 차츰 줄어나갔다.

110) 1937년 판본은 십이단을 함께 편집하였다.

조선 지역 공의회가 한국천주교회 교리서 개혁 운동의 정점을 찍었고, 그 결과 5개 교구 성직자 대표들이 참여하여 공식 교리서 『천주교요리문답』을 발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행된 『천주교요리문답』은 네 가지 측면으로 그 발행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천주교요리문답』 발행은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조선 지역 공의회 결정사항이었다. 특별히 “교리교육에 관하여(Decatechetica Institutione)” 교령 7항에서 『천주교요리문답』이 발행된 이유가 제시되었다. 또한, 공의회는 한국천주교회의 창설부터 필담(筆談)이나 문답으로 교리 교육과 신앙 교육을 이어왔던 전통을 재확인하였다. 곧 5개 교구 성직자 대표들이 『천주교요리문답』을 단일 교리서이자 공식 교리서로 발행한 것은 한국천주교회 교리서 개혁 운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공의회 목적인 공동 지도서와 함께 통일된 단일 교리서를 간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곧 1857년 『장주교윤지제우서』, 1887년 『조선교회 관례집』, 1912년 『대구 대목구 지도서』, 1923년 『서울 대목구 지도서』에서 시작된 교리교육에 관한 일부 내용을 조선 지역 공의회 교령으로 확정하여 『천주교요리문답』 발행으로 결정한 부분이다. 구체적인 조항으로 8항은 천주교 신자가 지켜야 할 의무인 성교사구에 교무금과 혼배법이 추가됨을, 9항과 10항은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교리교육을 지도하는 것, 그리고 문답 교리서가 한국교회 전통임을 확인하였다. 11항은 『천주교요리문답』이 주교들이 승인한 공식 교리서라는 것, 12항은 체계적인 교리교육 시행, 13항은 참고 규정, 14항은 예비 신자들에 관한 규정, 15항부터 17항까지는 교리교사의 자격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교리교육에 관하여 11개 교령 중, 8항, 9항, 12항, 14항, 15항, 16항, 17항은 기존 시노드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대목구 지도서에서 규정한 교리 내용이였다. 곧 『천주교요리문답』 간행은 공의회 목적인 공동 지도서 발행

과 함께 교리교육 부분에서 한국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통일된 교리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공의회 결정으로 발행된 단일 공식 교리서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

세 번째로,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 라틴어 원문과 『천주교요리문답』 제1판이 함께 발행된 점이다. 『천주교요리문답』 라틴어 원문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는 문답개정 위원장 드망즈 주교에 의해 1934년 8월 25일에 먼저 발행되었다. 그리고 약 일주일 간격으로 동년 9월 3일에 『천주교요리문답』 한글 번역본 제1판이 발행되었다. 이러한 발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한국천주교회는 5개 교구로 성장했고, 이에 따라 여러 외국 수도회가 한국 사회에 입국하여 전교를 활발하게 진행했던 시기여서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성직자가 공존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곧 외국인 선교사들에게도 새로 발행될 공식 교리서는 필요한 자료였다.¹¹¹⁾ 이렇게 발행된 라틴어 원문 교리서와 『천주교요리문답』 제1판은 목차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구성과 내용이 같게 발행되었다. 물론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에는 서언 전에 “EXPLICATIONES”(설명)이 편집되어 교리서의 간행목적과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1930년대 대표 간행물 『경향잡지』에서 『천주교요리문답』을 활용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대중들에게 전달한 부분이다. 1934년, 『천주교요리문답』 발행 후, 『경향잡지』는 1935년부터 1938년까지 그 내용을 3년간 꾸준히 연재하여 공식 교리서임을 알렸다. 물론 『경향잡지』에서는 서언과 믿을 교리 일부분만 연재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 일제강점기 중 중일전쟁과 전시 체제로 『경향잡지』 연재 면수가 줄어드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곧 전체 교리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천주교요리문답』 안에

111) 당시 가톨릭교회는 라틴어가 공식 언어였고, 신자와 교리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담긴 신학적 주제와 내용을 근 3년에 걸쳐 깊이 있게 전달했다. 특히 서언에 제시된 교리 총론과 계시(啓示)와 천주에 대한 교리 개념을 철학적, 역사적, 과학적 관점으로 소개한 부분은 『천주교요리문답』만이 갖는 교리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천주교요리문답』은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지역 공의회에서 한국교회 교리교육을 위해 기존에 논의되었던 교리 내용을 통합하여 발행한 공식 교리서였다. 그리고 조선 지역 공의회를 통해 어떻게 통합되고, 발전했는지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천주교요리문답』은 한국 천주교회의 공식적인 단일 교리서였고, 한국천주교회의 성장과 쇄신, 통합의 상징물이었다.

투고일 : 2024. 5. 16. 심사 시작일 : 2024. 5. 28. 심사 완료일 : 2024. 6. 13.

참고문헌

1. 자료

『Acta et Decreta Primi Concilii Regionalis Coreani 1931』, Hongkong (Typis Nazareth)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 1934, Hongkong(Typis Nazareth)

『경향잡지』

『대구 대목구 지도서』, 1912.

『서울 대목구 지도서』, 1923.

『성교요리문답』, 1864년 초판.

『장주교윤시제우서』, 1857.

『천주교요리』, 1925년 제1판, 1932년 제2판.

『천주교요리문답』, 1934년 제1판. 제2판.

2. 단행본

유재국, 『교리교육사』, 기쁜소식(서울 종로), 1990.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 3』, 분도출판사, 2010.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 4』, 분도출판사, 2011.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 5』, 분도출판사, 2014.

3. 학위논문

김유진, 『가톨릭 교리서 『요리강령』 연구 : 『요리강령』 판본연구와 『천주교요리문답』, 『가톨릭교회 교리서』 비교 연구』,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서동찬,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나타난 순교자들의 진술에 따른 신앙 이해와 영성』,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황규남, 『한국천주교의 교리서 변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4. 연구논문

김덕현, 「한국교회 교무금 제도의 기원인 공소전에 대한 고찰」, 61, 『교회사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22, 414-415.

김유진, 「요리강령 판본 연구와 가톨릭 교리서로서의 의미」, 『교회사 연구』, 57, 한국교회사연구소, 2020, 71-111.

여진천, 「한국교회사에서의 시노달리타스(1857-1961)」, 『이성과 신앙』, 72, 수원가톨릭대학교, 2022, 163-257.

조현범, 「한글본 『성교요리문답』의 한문 저본 연구」, 『교회사학』, 19, 수원교회사연구소, 2021, 157-212.

한윤식, 「1931년 한국 첫 지역 공의회 개최-공의회 개최에 관한 논의와 공의회 거행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 21, 부산가톨릭대학교, 2010, 107-135.

_____, 「1931년 한국 첫 지역 공의회-공의회의 교령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가톨릭대학교, 『신앙과 삶』, 22, 2010, 66-99.

_____, 「1931년 한국 첫 지역 공의회-현지인 선교지(Missio indigena) 설립과 한국을 위한 단일한 지역 신학교 설립 문제-」, 『신앙과 삶』 23, 45-69.

_____, 「뫼텔 주교의 〈서울 대목구 지도서〉 (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1923) 연구」, 37,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41-94.

5. 잡지기사

『교회와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69호, 1981, “천주교요리대문답(天主教要理大問答)”

_____, 71호, “*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서울교구 지도서”

_____, 78호, 1982, “*DIRECTORIUM COMMUNE*”

_____, 79호, “천주교요리문답”

_____, 177호, 1990, “성교요리문답”

_____, 279호, 1998, “성교요리문답”

『경향잡지』, 1447호, 1988, “최초의 공의회 개최-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기점으로 한 교회의 전망”

_____, 1489호, 1992, 85-87, “주고받는 말 속에서 밝혀진 믿음-성교요리문답”

_____, 1792호, 2017, 18-22, “한국교회의 근현대사 열두 장면-1931년 한국교회 첫 공의회 개최”

『司牧』, 35호, 1974, 4-14, “한국교회 교리서의 변천사”

6. 사전

『한국가톨릭대사전』, 4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201. “로머 신부”

『한국가톨릭대사전』, 11권, 8,545. “퀴젤겐 신부”

_____, 12권, 9,437. “한국교회 공동 지도서”

부록1.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 INDEX, 『천주교요리문답』 목차 비교표

문답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 1934 INDEX	『천주교요리문답』 1934 목차
1-12	<p style="text-align: center;">Proceium</p> <p>Finis hominis. Impletio finis per veritates credendas, praecepta adimplenda, media obtinendi gratiam, De Reve- latione, Scriptura sacra, Traditione. De Obligatione discendi doctrinam catholicam.</p>	서언 천주교
PARS PRIMA De Veritatibus Credendis		제 一 편 믿음교리
13-21	Caput I. De Deo	제 一 장 천주
22-25	Caput II. De Trinitate	제 二 장 삼위일체
26-32	Caput III. De Creatione, angelis & daemonibus.	제 三 장 천지창조
33-43	Caput IV. De Homine	제 四 장 인간
44-49	Caput V. De Peccato originali.	제 五 장 원죄
	Caput VI. De Deo Redemptore	제 六 장 구세주
50-58	Articulus I. De Incarnatione.	제 一 절 강생
59-68	Articulus II. De Redemptione	제 二 절 구속
69-74	Caput VII. De Spiritu Sancto.	제 七 장 천주성신
	Caput VIII. De Ecclesia.	제 八 장 교회
75-89	Articulus I. De Ecclesia Catholica.	제 一 절 천주교회
90-92	Articulus II. De communione Sanctorum.	제 二 절 모든 성인의 통공
93-94	Articulus III. De potestate remittendi peccata.	제 三 절 사죄권
	Caput IX. De Novissimis.	제 九 장 사망
95-98	Articulus I. De Morte.	제 一 절 주검
99-102	Articulus II. Judicio particulari.	제 二 절 사심판
103	Articulus III, De Coelo.	제 三 절 천당
104	Articulus IV, De Inferno.	제 四 절 지옥

문답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 1934 INDEX	『천주교요리문답』 1934 목차
105	Articulus V. De Purgatorio.	제 五절 연옥
106-108	Articulus VI. De Resurrectione carnis.	제 六절 육신부활
109-110	Articulus VII. De Iudicio universali	제 七절 공심판
PARS SECUNDA De Praeceptis Adimplendis		제 二편 지킬계명
111-112	Caput I. DE DECALOGO.	제 一장 십계명
113-117	Articulus I. De primo mandato.	제 一절 제 一계
118-121	Articulus II. De secundo mandato.	제 二절 제 二계
122-123	Articulus III. De tertio mandato.	제 三절 제 三계
124-130	Articulus IV. De quarto mandato.	제 四절 제 四계
131	Articulus V. De quinto mandato.	제 五절 제 五계
132	Articulus VI. De sexto mandato.	제 六절 제 六계
133	Articulus VII. De septimo mandato.	제 七절 제 七계
134	Articulus VIII. De octavo mandato.	제 八절 제 八계
135	Articulus IX. De nono mandato.	제 九절 제 九계
136	Articulus X. De decimo mandato.	제 十절 제 十계
137	De restitutione.	보환
138	De substantia omnium mandatorum Decalogi.	십계대의
139	De Officiis proprii status.	본지위의 본분
140	Caput II. PRAECEPTIS ECCLESIA.	제 二장 천주교회법규
141-147	Articulus I. De primo praecepto.	제 一절 제 一규
148-152	Articulus II. De secundo praecepto.	제 二절 제 二규
153	Articulus III. De tertio praecepto.	제 三절 제 三규
154-155	Articulus IV. De quarto praecepto.	제 四절 제 四규
156-159	De aliis duobus Ecclesiae praeceptis.	제 五절 사규위에 두가지 법규
160-161	Caput III, DE VIRTUTIBUS.	제 三장 덕행
162-167	Articulus I. De Virtutibus theologicis.	제 一절 향주덕

문답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 1934 INDEX	『천주교요리문답』 1934 목차
168-170	Articulus II. Virtutibus moralibus.	제 二절 윤리덕
171-179	Caput IV. DE PECCATIS PERSONALIBUS	제 四장 본죄
180-181	PARS TERTIA De Mediis Obtinendi Grátiam.	제 三편 성총을 얻는 방법
182-183	Caput I. De GRATIA.	제 一장 성총
184-188	Articulus I. De Gratia habituali.	제 一절 상존성총
189-191	Articulus II. De Gratia actuali	제 二절 조력성총
192-193	Articulus III. De Merito	제 三절 공로
194-202	Caput II. DE ORATIONE	제 二장 기도
203-210	Caput III. DE SACRAMENTIS.	제 三장 성사
211-223	Articulus I. De Baptismo	제 一절 성세
224-235	Articulus II. De Confirmatione	제 二절 견진
236-241	Articulus III. De Poenitentia	제 三절 고해
242-245	I. De Examine conscientiae	一, 성찰
246-258	II. De Contritione	二, 통회
259-260	III. De Proposito.	三, 정개
261-268	IV. De Confessione	四, 고명
269-273	V. De Satisfactione	五, 보속
274-279	VI. De Indulgentiis	六, 대사
280-281	Articulus IV. De Eucharistia	제 四절 성체
282-284	I. De Praesentia reali	一, 면주 형상 속에 예수 참으로계심
285-294	II. De Sacrificio Missae	二, 미사성체
295-301	III. De Communione	三, 영성체
302-306	Articulus V. De Extrema Unctione	제 五절 종부
307-311	Articulus VI. De Ordine.	제 六절 신품
312-318	Articulus VII. De Matrimonio.	제 七절 혼배
319-320	Caput IV. DE SACRAMENTALIBUS.	제 八절 준성사

문답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 1934 INDEX	『천주교요리문답』 1934 목차
APPENDICES		부록
I. De Praeparatione ad ultorum moribundorum ad Baptismum.		一, 대인입종대세 네가지 요리 조건대세경문
II. De modo Confessionem peragendi.		二, 고명규식

부록2.

『경향잡지』에서 연한 “『천주교요리문답』을 연구함”

연재연월일	호수	제목
1935년 9-11월	814~817호	『천주교요리문답』 서언
1935년 12월	818호	2조목, “사람이 천주를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려 하면 반드시 엇더케 할것이뇨?” “천주교는 무엇이뇨?”
1935년 12월	819호	“천주교요리는 몇곳을 포함하나뇨?”
1936년 1월	821호	종도신경의 역사와 중요한 원인
1936년 1월	822호	“지킬계명은 무엇이뇨?”
1936년 2월	823호	“성총을 엷는방법은 무엇이뇨?”
1936년 2월	824호	칠성사의 영향
1936년 3월	825호	8조목, “천주엇더케 이교리를 가라쳐주시뇨?” 9조목, “계시는 무엇이뇨?”
1936년 3월	826호	“계시는 무엇이뇨?(2)”
1936년 4월	827호	“계시는 무엇이뇨?(3)”
1936년 6월	831호	10조목, “성경은 무엇이뇨?” 11조목, “성전은 무엇이뇨?”
1936년 7월	833호	성경에 대한 설명
1936년 7월	834호	성전에 대한 설명
1936년 9월	838호	13조목, “천주는 누구시뇨?”

연재연월일	호수	제목
1936년 10월	839호	“천주는 누구시뇨?”(속)
1936년 10월	840호	“인과물로 천주의 존재를 증명함”
1936년 11월	841호	“천주의 존재, 인류의 의식으로 천주의 존재를 증명함
1936년 11월	842호	천주의 존재 - 양심
1936년 12월	843호	13조목, “천주는 누구시뇨”
1937년 1월	845호	“천주는 누구시뇨”-천주의 본질
1937년 1월	846호	천주의 완전성
1937년 2월	847호, 848호	16조목, “천주 무량하시뇨”
1937년 3월, 5월	850호, 853호	15조목, “천주 전지하시뇨”
1937년 6월	856호	17조목, “천주 공의하시뇨”
1937년 7월	857호	18조목, “천주전능하시뇨”
1937년 7월	858호	“천주전증하시뇨”(속)
1937년 8월	859호	19조목, “천주전선하시뇨”
1937년 8월	860호	20조목, “전선하신 천주 이세상 환난병고를 막지안 흐심은 어쩔이뇨”
1937년 9월	861호	21조목, “천주인자하시뇨”
1937년 10월	863호, 864호	22조목, “천주멋위계시뇨?” 23조목, “하나이신 천주가 멋위를 포함하여계시뇨?”
1937년 11월	865호	24조목, “세위 서로 관계가 어더하시뇨?”
1937년 11월	866호	25조목, “세위셔로눔고나즘과 먼저계시고 후에 계신 분별이잇나뇨?”
1939년 1월, 2월	869호, 871호	26조목, “천지를 조성하신자라함은 무슨뜻이뇨?”

Significance of publication of *Cheonjugyo yori mundab*, a product of the Jo-seon region council

Kim, Yu-Jin

Congregatio Sororum Beatorum Martyrum Coreanorum(SBMC)

This paper deals with the significance of publishing *Cheonjugyo yori mundab*, which was the official doctrine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Cheonjugyo yori mundab* was an official catechism issued by the decision of the Joseon Regional Council held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Archdiocese. The reason it was published in this way was because a single catechism was needed to renew and integrate the catechism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which had grown into five dioceses. In particular, the process of co-publishing the Latin original version of 『Catechismus communis Missionum coreae』 and the Korean translation of *Cheonjugyo yori mundab* showed the reform of the catechism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After *Cheonjugyo yori mundab* was published in 1934, it was serialized in the official publication *Kyunghyang Magazine* for 3 years. Although *Kyunghyang Magazine* did not introduce the entire doctrine, the theological themes and contents contained in *Cheonjugyo yori mundab* were conveyed in depth from 1935 to 1938.

Cheonjugyo yori mundab was the fruit of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Catechism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In addition, it was a catechism published after various contents related to catechesis that had been dis-

ABSTRACT

cussed since the first synod of the Korean Church were determined through the Jo-seon Regional Council. The *Cheonjugyo yori mundab* published in this way was handed down as the official catechism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for 33 years until the 『Catholic Catechism』 was published in 1967, and it also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doctrinal knowledge of catechumens and many general believers.

Keywords : *Cheonjugyo yori mundab*, *Jo-seon* Regional Council, *Kyunghyang* Magazine, Catechism, Catholic doctrine